

21세기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출판업계의 서바이벌 전략 디지털시대 출판경쟁력 모색... 출판경영자 화합의 장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이정일)가 주최한 출판경영자세미나가 지난 7월 1일부터 3일까지 경남 진주 동방호텔에서 개최됐다. 민음사 박맹호 대표, 열화당 이기웅 대표,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김낙준 이사장 등 출판인과 외부인사 140여 명이 참석, '21세기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출판업계의 서바이벌 전략'을 주제로 디지털시대를 선도할 출판환경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정일 회장은 세미나 개최사를 통해 문화의 원천이자 지식기반의 핵심요소인 출판문화의 중요성을 말하며, "출판계 및 문화 예술 단체들의 역량과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결집시켜 전통과 역사가 살아 있는 출판문화국가의 위상을 정립하고 국제경쟁력을 높일 것"을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의 기조특강을 맡은 이명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세계경영대학 원장은 "디지털시대에 아날로그식 발상과 경영을 하고 있진 않은지 자문할 것"을 주문하며, 디지털시대 기업경영환경의 변화와 과제, 고객을 이해하는 마케팅 전략으로의 전환 등에 관해 강연했다. 이명호 원장은 '서바이벌 전략'의 한 방편

인 출판마케팅 과제로 ▶유통시장의 다변화
▶수명주기가 짧아지고 있는 출판물에 맞는
고급화된 마케팅 전략 ▶독자들의 적극적인



이봉주 총장

참여를 끌어낼 MPR 마케팅을 들었다. 또한 출판경영자가 가질 안목으로 ▶민감한 현실성 ▶문화 수문장의 역할 ▶창의력과 의사결정력 ▶출판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의식 ▶조직문화의 선도자 등의 덕목을 제시했다.

제1주제를 맡은 차미례 세계일보 논설위원 (국가도서관정책자문위원)은 '준문맹 시대 한국출판의 활로'란 주제를 통해 현재의 출판위기를 독자에게로 돌려보는 신선한 논지를 개진했다. 차 위원은 "불황이다 하면서도 우리 사회는 수많은 양서출판사들이 기반을 잡아 출판대국의 기초를 이뤘고, 출판관련 지식이나 기술, 제작수준도 상당하다"며 책하고 인연이 끊어진 문화맹-책맹-준문맹자들을 개선하기 위한 해법으로 문화해독력을 높일 '컬처릴 리더러시 사전' 출판을 적극 주문했다. 차위원은 '어魚자원 고갈'이란 독특한 비유로 준문맹 시대 출판위기를 밝혔는데, "컬처릴 리더러시 사전작업은 당장이라도 사전과 부교재, 교육과정에 필요한 갖가지 독서물을 생산할 수 있는 실질적 작업이며, 한국 출판



이명호 원장



계가 그물질로 연명하던 어업에서 벗어나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할 계기가 될 것"임을 밝혔다. 문화맹-책맹-전문맹자들 앞에 양서의 미끼를 던질 것이 아니라, 출판계가 그들을 문화해독력 높은 독자로 변화시켜 출판시장 활로를 개척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진 제2주제 '출판경영자의 생활 건강'을 맡은 이봉주 전인건강마을 촌장은 30여 분간 참석자들과 스트레칭의 시간을 가진 뒤, 출판경영자에게 필요한 생활건강법을 강의했다. 저자와 독자 등 다단한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의 연속된 시간을 사는 출판경영자에게 필요한 것은 '내면의 여유'라며, 내면과 함께 생활할 때 영성, 심성, 감성, 인성 등 전인지능을 계발해 자기를 주도하고 창조적인 비전경영을 가질 수 있음을 전했다.

취재 | 박용두 기자 · 사진 | 박신우 기자

Zoom-in '컬처럴 리터러시(문화 해독력)'란?



전문맹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차미레 위원이 밝힌 전문맹이란, 글자는 읽을 줄 알지만 문장-문단-책으로 이어지는 텍스트 읽기가 어려운 사람들을 말한다. 자신이 잘 아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인접분야와 사회문화 전반에 대해 무지한 현대인도 여기에 포함된다.

1983년 버지니아대학의 영문학자 E. D 허쉬 박사는 신문과 잡지를 습관적으로 보는 대중이 그 내용과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에 착안, 문화커뮤니케이션의 한 소통방식으로 '컬처럴 리터러시(문화 해독력)'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컬처럴 리터러시란 특정 사물이나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 습득해야 할 배경지식의 총화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쉽게 말해 문화적 소통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글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를 이해해야 한다는 얘기다. 허쉬 박사는 사용빈도가 높은 언어의 문화적 연계성을 연구했고, 1만 개 아이템을 23개 섹션으로 분류한 책을 펴냈다. 이 책이 학계와 교육계, 연방정부의 큰 관심을 끌게 되면서 '컬처럴 리터러시 재단'을 창설, '컬처럴 리터러시 사전' 또한 발간되기에 이른다. 매년 '살아 있는 지식과 용어'의 새 항목이 첨삭되며 증·개편되어 출간되고 있는 '컬처럴 리터러시 사전'은 출판물량의 새 수요를 창출하면서 차세대 독서력배양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독특히 기여하고 있다.

'자발적 독서인구 생산'이라는 출판계의 과제를 차치하고라도 작금의 우리에게 '컬처럴 리터러시 사전' 발간은 시급한 과제다.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은 문맹률 2퍼센트라는 수치는 문화적 경쟁력의 잣대가 될 수 없다. 지식의 사각지대, 지식의 진공상태를 메울 컬처럴 리터러시에 허기를 느낄 때다.



차미레 위원